京城寬助村二六

중에는 이 생각 조종에는 이 대한 소리는 이 대한 소리는 이 대한 소리는 이 가을 맛지만 '어 느때든지 다가 나는 그런 나는 지 그 나는 그를 보고 있다. 그리나는 이 당기는 이 말을 이 어디다 그리나는 이 당기는 이 말을 이 어느때든지 아이기 그 보답을 더는데 보다 하지 않는데 보다 되었다. 国古の면 田子的比语하片

山口運動具製造所

ケット | || 戦将京城五三五

京城本町貮丁目





を利工物を精神処態おり、破損を成功 おえい一次受用を入る。 地方と氏金

마리아의손

말로씨이것이라 말아날

변기가치 늦게드레오면 아이에 무대하는 안상스레운소 이번에 무대하는 한당스레운소 그러한반물들택기 사다 가는 낮스나 불만되돌합기 사다 가는 물속계로 나려올라다 가는 물속계로 나려올라다 엄마 공연히 이병을등고 왕나—하는 생각도 엄지만 무는따로 우롱쪽물대답

> **西輪合 山口樂器店** (カタロク)池量…

「三都幾の日田」



용을 보고 커고리 약함자 말 한하 되니 한테스 후에서 존 한마되면한 한리스 후에서 존 다시되었다 한시계를 보게 다시 한이 다그 다시 한이 다그

일타가메피등 라는 의 기술을 들는 다시 그 기술을 하는 이 기술을 보지 않는 이 기술을 하지 않는 이 기술을 보지 않는 이 기술을 하지 않는 이 기술을 보지 않는 이 보아 그런지 별식없이라 첫 / 사하마신지 첫 대 몸이 하마지고 머리 人쪽은 잠기

다시우이라げ봇도그막신에 맛 보증맛 구를맛의로모되 화반이 아름쥐되으로 간모 환이다 차맛회찬되맛도 그 보이 그런지 별시약이라듯

ClibPDF - www.fastio.com

地方会の表現の 一部では、 一述では、 一では、 一では、



新路四ノ五〇 柳命烈 田光一丁カ五 器駅捕鐵綱純製國米 (五個以上野秋石幣) 兴七国了二河路到府城市

J

微 共進商店 [特價] "意 では光化門」でもで、板壁京城「〇七五六・泉寺園京城局五番 端輪人元セヤマ洋樂器店 水上点呗点

同道戰原聯前 - 率據紀代為江東道伊川郡安陝而格

一次八七城市特质

7

靴洋昌世於在 , w 円の實堅於在 ○ 世 昌 洋 靴 一 活 別 が 一 活 別 が 至 い 自 信 行 助 **은疾足者―先占の金** 一十世紀文明月桂冠 內部各年6日丁二時间府城京。 「本 主 」 「帝三七〇一門化光簡單。 一番八七八七城京眷振。

하여 겨오 상당한한점 부산에서 보존상성을라고 구수 묶스로 이 시사라운학하였다며 보름학생들에 한 의 이상육한 한국이 있다는 소란전 그는분하다로 되고 이루다는 서의 송명이 있다면 본 삼년이 시시는 그랜드를 얼룩하지 때때는 씨大猷 모다고 이루면서 등 태우기 된 당승이로 사용이라더라 지수 등 태우기 된 학생으로 사용이라더라 지수는 기가 되었습니다. 보는기에 의 지금 이 등 명성을 얻지못할 수 1 중요.

ClibPDF : www.fastio.com

其木牛黑魚小大米 奶瓶豆豆铂

他休

四

"Voice of The Twenty Million" THE DONG-A ILBO.

SEOUL, KOREA, SUNDAY, DEC. 9th, 1923.

The way of life is above to the wise, that he may depart from hell beneath .- Prov. 15: 24.

AN ASPECT OF KOREAN LIFE TO-DAY. BY TYUN YOUNG LO-

To a casual observer, the present life of the Koreans presents anything but an optimistic picture. No sign of growth or progressiveness forces itself upon his sight. Slovenliness and inertia —— the ugly offspring of their past inactivity —— like a subtle poison stealing through the veins still seem to wield merciless sway among the Adroning, white-clad people.

But we may safely assert that such a condition belongs happily to the past rather than to the present. By this it is not in the least meant that there are no instances of relapse in regard to these national shortcomings. On the contrary, we admit that there are too many of them to be concealed. But, so long as every development owes its rise to the vital germ of what we may term "tendency", one may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be easily led away to a wrong conclusion by the apparent facts. Clearing weather may be attended by as much cloud as when a sudder storm is coming on. One must have an eye to discern the stray clouds that linger in the sky after a long rain.

There has happened many an astonishing, il-awakening-event;- we have passed—through as many heart-rending vicissitudes as can ever come to a people. Slow as we have been, those have proved stimulant enough to have arouse our national consciousness. We are awakened at last from the lethargy of long g nerations. We are conscious at last of what w up to! The petrified stupor may linger, but go it must! The fire that has lain dormant has begun to burn in our besoms. The sanguine life seed begins to stir itself, giving us the full

Therefore, we cannot choose but be active optimists. We are forgetters of the past because we are inspired by the future. Our progress is slow but sure. Stunbling-blocks will be our stepping stones; trials will whip us only to quicken our steps. Jungles of difficulty will be found conducive to the steadiness of our purpose; overwheming obstacles will only render our spirit more indomitable.

WI. 見野의悠狀孟生人鮮朝下現 鲁 菜 下

有至の際山

破安公立普通學校

那北基督教會 職 [五] 一 同 職員一

同

支占可非交計為書別ない中

●全國各地——班家在北京の···

航血事務所 金

坝

闹

伽倻面有志一同 成安而喊員一同

成安郡廳職員一同 同 · 安大社 金裕构

南 解 選 送 店 伽倻原節 姜 大 瑞

师公立曹通學校職員一同

伽爾感察官駐在所員一同

加邮间融品一同

所別のいる独かしは他族となっている。 仮心計コ 皮所州昌天打母司以至馬南英的 吴台中是孤即代極龍回迷路計二 ●迷信打破!

用立是瓜都是青奶山計學放作 幼力可則可以正安全無好 所回歐洲各投減市口開省展

△쓰리지도합코

城市先春人中的明州市马乔治市市山地市口中

y.

缃

採

排出而小加出 安 大

袱 郷

^米製師 洪 八 在 二

成力資水作困獵行毛組固龍可見着方置原計入外 一日可量是出现首外会口中1回一半水1回左龍皮府將一切的數號第二次 司是故皇皮膚病與治量目的計略个番此溶級樂門可一年水汀

都北極整竹雕在所以一同

概 信友而會

7日の神殿諸錦、明清、韓越、山井沢山川寛秋田(京居春の年代からだり)、今の水県7大中四 元神紀(ネンス)書野ではや小大郎の関土は15足むら足皮術所立ら 5天1四十字木2番4年以入館の関土は15足を5久と

A M

地上面上岩里

郡北面鄉員一面

鹽味出調

お宮が見の前に関係也見が形容け手の出現には強硬のは、解媒体のは宮穴は人成大シエは、側翼スの以及は名しは、側一は元の人のお言し間の流気大が原風神では古の以及……技能は近代今の点部ではらい様本は元の公安を派光が大きに大地があり、の訳は自己解析の見ばるの一部がおの数で言に大地がある。

川早天の目前,列天以

薬化學應用 戊膚病退治 今番州豆豆

1919年,曾名《夏、万里代》]基份基层区(非深风频器)向不为,也依信风处分的,这都可以形形的形式的形式。由林斯斯对达)之,但在1918年,通知"他"之人是"巴"将他"人"是"他"的"这个是"巴"将他

ClibPDF - www.fastio.com

成安農員 北市 被安排以并完假宣使 排化面块衬具 177

新世界第一中 福·同

南部祭育雕在所員一周

(a.)

明上早水の作用 迎付以上

咖啡 員 一

同

概化

) | MB

ili.

版 期 米、八日 九節三面大田 三面(七二三三七三三八二)



◆度心を記す 熱情玩味が世界経可能味フィルぞの

神經病 是樂 健 協 丸!!

金屬 路 以 即 及 以 與 實 賃

不眠。上便秘上頭痛。的確立効有計

劝

司是特別原數

主

加

か快か州日と

偷 ∵;* 會商平丹表賞

一萬紅友의 嬔庫

分放資(但向一個) 週 間

ClibPDF - www.fastio.com

治學

商

師界

면服堂で早

市京橋際第一

一階毛織物問屋關谷商店

and all m